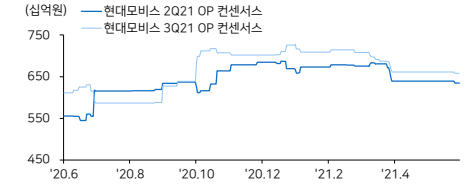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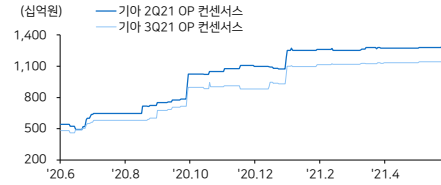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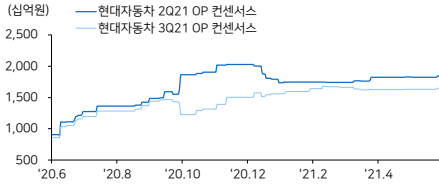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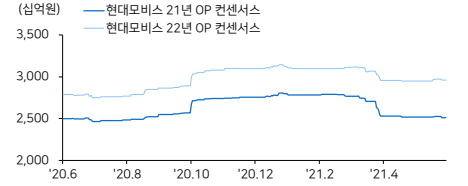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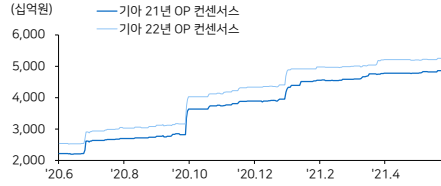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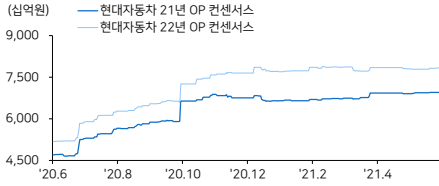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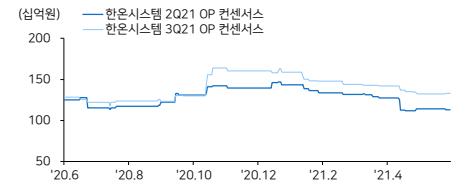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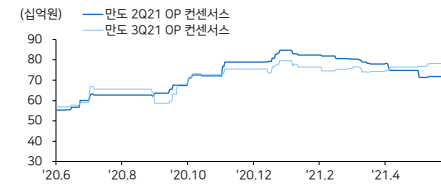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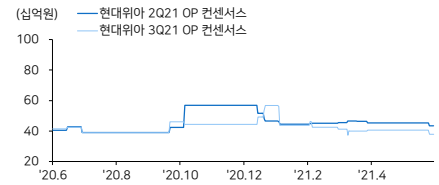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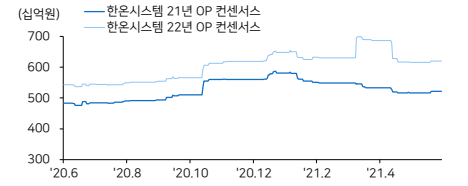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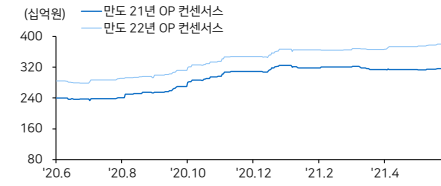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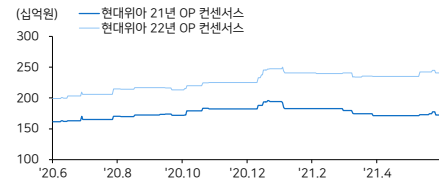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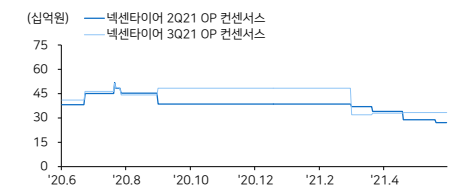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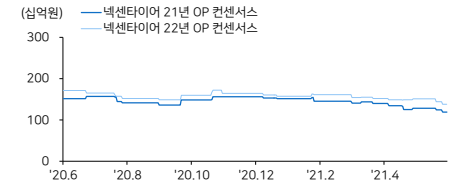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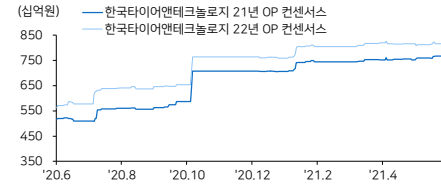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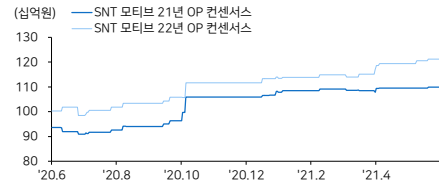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코나EV-테슬라 모델3, 英 경찰 순찰차 '맞짱' (THE GURU)

테슬라는 최근 자사 전기차 모델3의 외형을 경찰 순찰차에 맞춰 바꾸는 등 영국 순찰차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준비 중.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영국 스코틀랜드 경찰과 전기차 공급 계약을 맺고 180여대에 달하는 코나 일렉트릭을 순찰차로 공급. <https://bit.ly/3A9v3jf>

현대차 상해연구소, 中 스마트카 생태계 구축...이통테크 공동연구소 설립 (THE GURU)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 스마트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지 IT 전문기업과 손잡음.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에서 스마트 웨어러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응용 분야를 개발할 예정. <https://bit.ly/2Ucn4t2>

2025년 자율주행 서둘러·배출 상용화...“운전 부주의 사고 50%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이는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해 마련되는 첫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교통물류 체계 발전과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음. <https://bit.ly/3hwQyBn>

여건 강성노조 없다, 쉐넬벨트 물러선 글로벌 전기차 (조선일보)

미국 남부 지역이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급부상하는 중. 테슬라는 '테라팩토리'를 텍사스에 건설 중이며, VW는 체타누가 공장을 전기차 기지로 전환해 내년부터 ID.4를 생산할 예정. 현대차·기아도 이곳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지을 계획. <https://bit.ly/2Ugawc4>

기아 텔루라이드, 1130만원 더 줘야 산다...토요타 보다 비싸 (아시아경제)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모든 기능을 갖춘 최고 등급 차량 재고가 부족해 딜러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중.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신차마다 1000~2000달러의 웃돈을 줘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xiOwfi>

현대차, 中 IT업체와 운전자 건강관리 기술개발 협력 추진 (연합뉴스)

현대차 상해연구소는 현지 IT 기업인 '이통 테크놀로지'와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운전자 건강 관리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 현대차 관계자는 "이통 테크놀로지와 협업은 초기 검토 단계"라고 밝힘. <https://bit.ly/3xiOwfi>

中 차량 공유 업체, 원조 우버 추월하나...오늘 공모가 확정 (아시아경제)

디디추싱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예정 공모가는 13~14달러이며, 밴드 상단에서 결정될 경우 시가총액은 약 76조 원, 조달자금 규모는 약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디디추싱은 중국 차량 공유 시장의 90%를 차지한 기업. <https://bit.ly/3AbyhCP>

스텔란티스 전기차 데이에 쏠리는 눈...합작사는 누구? (서울경제)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와의 협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스텔란티스는 다음 달 8일 'EV 데이 2021'을 개최하여 전기차 전략을 발표할 예정. 동사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 전기차 출시를 발표할 바 있음. <https://bit.ly/3hgud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